

故송민영
4주기 추모집



故송민영

1984년 11월 5일 서울 출생, 전라도 광주에서 성장

2005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모반 학생회장

2007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정책국장

2009년 전국학생행진 중앙운영위원회 조직국장

2010-12년 민주노총 충북본부 총무차장

2013-15년 사회진보연대 조직국장

2015년 12월 2일 불의의 사고로 운명

글 심는 순서

- 송민영에게 쓰는 편지 4쪽
- 송민영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 13쪽

송민영에게 쓰는 편지

2019년 12월 2일은

송민영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4주기를 맞아 몇몇 선후배, 친구들이

송민영 동지에게 쓴 편지를 담았습니다.

보고 싶은 너에게

가끔 소리내어 네 이름을 불러보곤 해
자꾸만 연해지는 것 같은 지난 시간이 송민영 송민영 또박또박
말하다 보면 또렷해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봄바람이 사랑살랑 불고 햇빛이 따뜻해지면
이제 정말 봄같아, 다음주면 꽃도 피겠는걸, 아직 추운데 예쁜
옷 입고 싶어서 그냥 이려고 나왔지롱
봄레발 치던 네 목소리가 함께 들려온다. 와 벌써 여름이야 더
워 못살겠어, 스타킹 벗고 반바지 입어야 끝나던 우리의 봄레발.

언제나 너는 나의 봄, 나의 봄은 늘 너
보고 싶은 민영아, 따뜻하고 예쁘게만 있으면

2019.3.18. 추모게시판에서
글쓴이 '나'

언니 잘 지내고 계세요?

어제 날씨가 무척 후덥지근하고 더웠는데
바람 한 줄기가 시원하게 불어와서 언니가 생각났어요 ㅎㅎ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저에게 생생한 언니의 기억은
그 15년 겨울 뒷풀이 자리에 앞에 와 앉아서
반가워해주고 번호도 물어봐준 기억인데
계속 그런 다정한 기억들이 떠올라서 고마운 건
참 신기하죠..ㅋㅋ

아, 맞다 그리고 곧 새로운 환경에 가게 될 (수도 있는) 동지
가 있는데요.

언니가 준 따뜻한 환대를 받도록 응원해주세요 ㅎㅎ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구요~ 또 올게요^0^

2019.7.20. 추모게시판에서
글쓴이 '아는동생'

민영아



며칠 전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 이게 무려 7년 전의 일이라니. 바로 엇그제 일이었던 것처럼 생생한 기억인데 말이야...

그랬더니 복희 언니는 ‘사진의 얼굴들은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증명하는 듯하다’는 말을 남기셨어... ^^;

그래 우리는 늙고 너는 그 모습 그대로라는 것이... 서글프기도 하고 너무나 그립기도 하구나.

이 사진에는 역시나 너가 없지. 네가 찍은 사진이니까.
비록 사진 속의 모습으로 남지는 않았지만,
이 행사를 기획하고 점검하고 진행하고 갈무리하고... 그 모든
순간에 있었던 우리송.

이뿐만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빛나던 순간을 너와 함께였
다는 것이 두고두고 고맙다.

고마운 민영아, 해가 지날수록 생생했던 기억도 어찌면 조금씩
달아 없어지겠지만

그럴수록 선명해지고 짙어지는 감정으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보낼 수 있겠지.

다섯밤 자고 만나러갈게 민영아. 안녕.

2019.11.26. 추모게시판에서
글쓴이 '문설희'

민영에게

민영아 안녕,

얼마전 꿈에서 만나 안부를 물었을 때, 그 곳은 어떠냐는 질문에 내가 활짝 웃어주었던 기억이 난다. 민영이가 꿈에 나타나준 날에는 골치아프고 어려워하는 어떤 문제가 신통방통하게도 잘 해결되었는데, 참으로 신기하게 그날도 그랬단다. 네가 우리 곁 어딘가에 있다는 생각에 기뻐어. 또 고맙고 감사하다^^

나는 광주에서 올라와 연남동으로 출근하고 있어.

6년 만에 다시 돌아온 사무실 생활은 익숙하기도, 낯설기도 하고.

여전히 많은 고민, 생각들이 매일 한 가득씩이야.. 즐겁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렇다..

네가 함께 있었으면 과메기에 소주, 맥주를 잔뜩 먹으며 밤새 나의 토로를 들어주었을 텐데, 지금은 다른 후배님들이 고생을 해주고 있단다ㅋ

가을이 깊어서 사무실 앞 공원의 은행, 단풍잎의 색이 짙어지고

있는데 참 예쁘고 아름다워. 네가 있는 곳도 꼭 이렇게 멋질 것
이라 짐작하고 있어.

잘 지내고.. 너와 함께 나눈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잘 곱씹고 되
뇌이며, 우리의 몫을 다해 나갈게. 늘 평안하길 바란다.

2019.11.27. 추모게시판에서
글쓴이 '소형'

민영언니

벌써 4주기라니요. 시간이 빨라 어안이 빙빙하네요.

언니, 그리고 보니 저는 언니보다 한 살 많은 나이로 한해를 살았어요.

올해도 남가좌동, 연남동, 대림동, 청주를 오가며 문득문득 언니를 떠올렸어요. 언니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 일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언니의 선택, 언니가 했던 말들, 언니의 눈물과 웃음들을 곱씹으며 살았어요.

언니가 좋아할 것 같은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 새로 등장한 아이돌을 볼 때면 수다 떨고 싶은 얘기가 많아 입이 근질거렸어요. 언니가 있었으면 몇 배 더 재밌고 뜻깊었을 순간들도 많았어요.

언니의 빈자리가 빈자리인 채로, 언니의 나이가 서른두 살에 멈춘 채로, 시간이 계속 흐르는 것이 속상하고 슬퍼요.

나이를 더 먹어도 언니는 나한테 계속 언니일 것만 같아요. 언니를 떠올리며 나도 조금 더 현명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도록 노력해볼게요. 그러니 걱정 내려놓고 푹 쉬어요.

2019.11.27. 추모게시판에서
글쓴이 '유미'

민영선배에게

최근 광주에서 서울 가는 버스를 타고 올라가던 길이었어요. 산과 산 사이를 지나가는데 산들의 높이만큼 제 마음도 널을 뛰더라고요.

언니를 보낸지 4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이상한 병에 걸리기도 했고, 또 다른 이별을 겪기도 하고, 왜 같은 일이 반복되는지에 대한 한탄과, 함께하고픈 또 다른 노력들을 발견해 내서 내심 두근거리기도 했어요.

이것들이 쌓인 만큼 언니와 함께 나누었으면, 어땠을까요?

언니는 저보다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어서 제가 언니와 나란히 있긴 어려웠을 순 있어도 저의 생각들이 언니에게 또 다른 힘과 기쁨이 되었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먼 곳에서도 보고 웃어주면 좋겠어요.

2019.11.27. 추모게시판에서
글쓴이 '미지'

송민영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

2018년 12월 2일, 3주기 추모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단어, 장소, 음식, 노래, 순간 등
'송민영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에 관해 적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적어주셨는데요.
적어주신 내용 중 일부를 담았습니다.

영수증

언니의 가방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마셨던 진토닉 두 잔의 영수증을 찾았어요. 언니의 짐을 정리하다가 정말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언니와의 마지막 기억이 즐거운 것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과메기

*

어제 TV를 보다가 첫 과메기 이야기가 나와서 언니 생각이 났어요. 첫 과메기 해야 하는데.

*

너를 떠올리면 세상 모든 게 떠오르는 걸. 그래도 맨날, 시간만 되면 궁리해서 맛있는 거, 제철 별미에 부어라 마셔라 했던 게 너무 너무 생각 나. 찬바람이 불고 과메기 철이 오면 늘 생각난단다.

공공모임

내가 아직 적응하지 못한 시절에 담당했잖아. 별도
움이 되지 못해서 늘 미안하다.

토가시

녹두 만화카페에서 토가시가 일 안해서 헛터헛터가 연재 중단됐다고 일해라 토가시, 토해라 일가시, 하면서 쓸데없는 노가리 까던 시간이 그립네. 결국 결론은 “일 안 해도 된다”였지. 일 고만하고 생각, 충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직도, 나한테도 또 그 말이 맞는 듯.

인천송도국제마라톤

누구보다 활기차게 긴 코스를 거침없이 달려 나갔던 동지를 기억합니다. 송림동에서 이어진 뒷풀이. 닭알탕과 병어회. 가리는 것 없이 다양한 것들을 즐기고 추천하던 동지를 기억합니다.

밤과 음악 사이

멕시코에서 돌아오고 가장 먼저 누나를 찾아갔었지요. 뽀죌해하고 민망해하던 저에게 한국 사람이 되어야겠다며 흥대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춤을 췄던 기억은 여전히 강렬하네요. 이제는 누나가 멋지게 추던, 모든 이들의 이목을 사로잡던 시간을 다시 보낼 수 없지만. 하늘에서는 그때의 환한 미소로 흥 넘치게 잘 지내고 있길 바랄게요.

숙성회

마포농수산물시장에 같이 가서 숙성회를 먹었어야 했는데 아직도 그 시간을 못 낸 것이 마음에 남네요. 그 이야기로만 회를 한 접시 다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었죠.

선글라스

송민영 선배가 이끌던 교육을 받고 사회진보연대 활동을 시작했어요. 선배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항상 고맙고 미안했지요. 그런 마음을 담아 저희 신입활동가 진출팀이 선물했던 선글라스가 떠오릅니다. 그걸 끼고 좋아하던 선배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유성기업

요즘 유성기업 동지들이 너무 힘들어요. 8년 동안 두드려 맞다가 정말이지 너무 맞다가 더 맞으면 죽을 것 같아서 죽지 않으려고 한번 때렸다가, 난생 처음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덤벼들어 물어 뜯고 있어요. ‘희망커피’ 기발한 아이디어로 유성 동지들 힘 줬던 것처럼 유성 동지들의 힘이 되어 줘요. 보고싶어요.

불곱창

무슨 일이든 쓱쓱 쉽게 해내던 너의 능력이 많이 부러웠는데.. 그런 너도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매운 음식이 생각난다면서 우리 같이 불곱창을 먹으러 갔던 것이 기억이 나.

집

제가 처음 청주에 와서 전날 술을 잔뜩 마시고 가로수 길을 함께 걷고 다음 날. 집을 구할 때 막막해하는 저와 함께 언니가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집을 구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공간이 달라 함께한 기억이 많지 않았지만 언니는 언제나 든든하고 의지되는 사람이었어요.

스타렉스

스타렉스를 보면 언니 생각이 나요. 사무처나 진출팀 앰티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신고 그 큰 차를 능숙하게 몰면서 최신유행곡을 틀어주곤 했었잖아요.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케이크라는 노래를 나는 언니가 운전하는 스타렉스의 조수석에서 처음 들었어요. 진출팀 후배들을 데리고 광주에 간 날이었는데, 내가 언니한테 매화꽃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찾아보다가 결국은 광주 선배들 추천으로 담양 소쇄원에 갔었잖아요. 언니 인스타그램 프로필사진에 남아있는 날이에요. 그 사진은 언니가 신나게 눈누난나 하면서 저 멀리 먼저 가버리고 있는 뒷모습이라서, 볼 때마다 슬프지만요.

*

사무실에 자주 오라고 했던 말씀, 군 생활도 잘 해낼 거라고 했던 말씀, 자신감을 주셨던 말씀들이 생각납니다.

*

누님의 후배인 지금의 여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술집으로 오라는 ‘통보’를 받았 습니다. 후배 남자친구로 적당한 녀석인지 ‘면접’을 보겠 다는 것이었죠. 몇 시간 되지 않은 짧은 술자리 면접이었지 만 그 시간 동안 누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과 제 여자친 구를 얼마나 아끼고 신경 쓰는지도 알았습니다. 그 면접에 가는 동안 갑자기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법이 어땠냐며 투덜거렸지만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면 영원히 누님이 어떤 분인지 상상도 하기 어려웠겠죠.

*

내가 너무 기쁠 때, 힘들 때, 내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 자랑스러울 때, 외로울 때, 그리울 때, 행복할 때, 동지와 동기들을 만날 때, 어머니 아버지를 뵈는 때, 좋은 풍경을

볼 때, 일상이 새삼 새로울 때, 운전하다 아찔할 때, 혼자 있을 때, 담배를 피울 때, 하늘을 볼 때, 밤길을 걸을 때, 웃을 때, 벚꽃을 보고 수평선을 보고...

*

봄, 여름, 가을, 겨울, 양꼬치, 과메기, 전어회, 라면, 해방터, 녹두, 홍대, 이태원, 바다, 들판, 아스팔트, 골목길 모두 언니가 있어요. 사랑해요. 많이. 아주 많이. 보고 싶어요. 아주 많이.

*

그밖에도...

만화, 미소, 그림자, 여주 금모래 은모래, 별밤의 채석강, 홈커밍데이, 칵테일, 꽃놀이, 앰프, 카탈레나, 노래방, 지금 요즈음, 스지탕, 분홍색 헤드폰, 견과류, 담양 소쇄원, 대추차, 가슴기, 아기 강아지, 걸그룹 여자친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귀여운 것들, 연남동, 술, 활동력.....

故송민영 4주기 추모집

펴낸 날 2019년 12월 1일

펴낸 곳 사회진보연대

주 소 서울 마포구 동교로29길 14-1 3층

전 화 02-778-4001

메 일 pssp4001@gmail.com

홈페이지 www.pssp.org